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· **문 의** : 여성정책연구소 이주연 부연구위원
(063-280-7193)

·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17년 0월 00일() 12시부터

전북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, 법적 근거 마련 시급

장애유형별 진료 가이드라인 제작,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

- 전북연구원은 정책브리프 「전라북도 여성장애인 모성권 실태와 향후 과제」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자녀 성장발달 단계 등에 따른 여성장애인 모성권(임신·출산·자녀양육) 실태, 욕구분석 및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.
- 정책브리프에 따르면, 2016년 12월 기준 전북 등록 여성장애인은 59,325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(130,345명)의 45.5%이다. 이 중 모성 경험(임신·출산·자녀양육)이 있는 40대 이하의 여성장애인은 총 8,435명으로 나타났다.
- 전북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실태 및 욕구분석 결과 장애유형 특성별,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별, 임신·출산·자녀양육 과정별로 각각 차별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정책브리프에서 제시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은 다음과 같다. △ 장애유형

별 특성 중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유형은 지적장애로 결혼 전 교육, 임신·출산·성 교육, 자녀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가사 및 양육 코칭 등을 꾸준한 시간을 두고 지속 관리·지도하면서 모성 역할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가칭 '멘토 서비스 지원' 등이 필요하고, △자녀 성장발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영·유아 단계에서는 위급상황 시 신속한 지원, 아동기에서는 가족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캠프활동 지원,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학습 및 정서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. 또한, △장애산모의 산부인과 진료 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의료진(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 등)의 행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장애산모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제고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산모교실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이주연 부연구위원(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)은 경기도 「여성장애인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 조례」의 사례와 같이 전북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,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통계 구축 등 장애인정책의 성인지적·모성권적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또한, 전북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(현재 전주·군산·익산 3개소)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장애인가족 대상 돌봄과 휴식지원, 사례관리와 역량강화 지원, 가족의 상담지원 등의 조례 내용을 담아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- 새 정부가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·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, 전라북도도 이러한 장애인정책의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·강화할 필요가 있다.